

1저자, 공동 저자, 그리고 교신 저자

연구를 하다 보면 혼자서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이를 구현하고 평가한 이후에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많은 경우 하나의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다수의 연구자가 서로 협업하여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그러면 논문에서 1저자, 공동 저자, 그리고 교신 저자는 무엇이고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1저자는 논문에서 가장 공헌도가 높은 연구자가 가져가게 된다. 따라서 연구 진행 중 해당 부분을 상호간에 협의하거나 교수님께 조언을 구하여 적합한 연구자를 채택하도록 한다. 1저자를 제외한 모든 저자는 공동 저자이며 대부분의 인식은 1저자보다 연구에 대한 공헌도가 낮다고 평가한다. 그렇다면 사회에서 생각하는 1저자와 공동 저자에 대한 인식을 올림픽에 빗대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올림픽에서는 우수한 선수들에게 금메달, 은메달, 그리고 동메달을 부여한다. 사실 모든 메달이 값지지만 나라의 순위를 매길 때는 금메달의 개수가 가장 중요하다. 즉 은메달 100개보다 금메달 1개가 순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를 저자에 비유하면 1저자는 금메달 그리고 공동 저자는 은메달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동 저자의 공헌도가 결코 낮은 건 아니지만 높은 평가를 위해서는 1저자로 논문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신 저자는 무엇일까? 교신 저자는 논문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저자로서 추후 연락을 취해야 할 경우 해당 저자에게 연락을 취해달라는 의미에서 교신 저자로 선정한다. 대부분은 지도교수가 교신 저자 역할을 하게 된다.